

중공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하 영 선

(서울대학교 社會大 敎授)

<目 次>

- | | |
|--------------------|------------------|
| I. 머릿말 | IV. 중공의 핵전략 |
| II. 중공의 핵전력 개발 현황 | V. 중공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
| III. 중공의 핵개발의 요인분석 | VI. 끝맺는 말 |

I. 머릿말

이 연구는 중공의 핵무기 개발의 요인과 영향을 세계질서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하는 데 그 주목적을 두고 있다.

중공의 핵무기에 대해 이제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주로 미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¹⁾ 이 글에서는 세계질서라는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중공의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1) 중공의 핵무기에 대한 연구의 bibliography로서는 Leo Yueh-Yun Liu, *China as a Nuclear Power in World Politics*(London: Macmillan, 1972), pp. 107-115와 Lewis A. Dunn & Herman Kahn, *Trends in Nuclear Proliferation, 1975-1995* (Croton-on-Hudson, N.Y.: Hudson Institute, 1976), pp. 175-178에 참고할 만하며 보다 최근 연구로서 중요한 것은 S.K. Ghosh & Streedhar, *China's Nuclear and Political Strategy*(New Delhi: Young Asia Publications, 1975); Thomas W. Robinson, "Chinese Nuclear Strategy, 1965-1985," Presented at the 2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Tronto, Canada, March 21, 1976; Jonathan D. Pollack, "China as a Nuclear Power," in William H. Overholt, ed., *Asia's Nuclear Future*(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 pp. 35-66; Ray Bonds, *The Chinese War Machine—A Technical Analysis of the Strategy and Weap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London: Salamander Books Ltd., 1979); Gerald Segal, "China's Strategic Posture and the Great-Power Triangle," *Pacific Affairs*, Vol. 53(4) (Winter, 1980-81), pp. 682-697; Gerald Segal, "China's Nuclear Posture for the 1980s," *Survival*, Vol. XXIII (1) (Jan./Feb. 1981), pp. 11-18; Gregory Treverton, "China's Nuclear Forces and the Stability of Soviet-American Deterrence," *Adelphi Paper*, No. 160(London: IISS, 1980), pp. 38-44; Amos Yodor, "Chinese Policies Toward Limiting Nuclear Weapons," *The Stanley Foundation Occasional Papers* 22(Muscatine, Iowa, March 1980).

접들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따라서 글 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공의 핵무기 개발의 추세를 간단히 살펴 본 다음에 둘째로 이러한 추세 변화의 국내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세째로 중공의 현재의 핵전력에 기반한 핵전략의 기본 성격을 규명하고 네째로 이와 같은 중공의 핵무기가 오늘의 세계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공의 핵무기의 장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중공의 핵전력 개발 현황

중공의 핵전력 개발추세를 정확하게 파악, 측정하는 데에는 공개된 일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중공의 핵실험, 핵운반수단 개발, 인공위성 발사의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그 추세를 읽어보려고 한다.

a) 핵 실험

핵보유국들은 계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질을 높여 왔으므로 핵실험의 내용 분석은 이들 핵무기의 질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작업의 하나이다. 중공의 경우에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4년의 첫번째 핵실험 이후 1980년까지 약 25회의 실험을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²⁾ 이들 핵실험의 내용이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서는 첫째로 중공의 26회의 실험 회수는 미국의 667회, 소련의 447회, 불란서의 97회, 영국의 33회에 비하여 대단히 적은 것으로 따라서 핵무기 자체의 종류, 질, 신뢰성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아 낮은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실험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964년의 첫실험 이후 1978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 내지 4회의 실험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아 국내의 정치, 경제의 다양한 변화속에서도 핵무기의 연구 및 개발은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핵무기의 폭발력의 면에서는 실험횟수의 약 60%가 20KT 급의 원자폭탄의 위력을, 그리고 약 30%가 3MT 급의 수소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공이 두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

(2) 핵실험에 관한 자료는 주로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1966-1981)에 의존했다.

표 1. 중공의 핵실험

년/월/일	폭발력	폭파방식	운반수단	비고
1964/10/16	20KT	지상	철탑적제	Uranium-235 원자폭탄
1965/ 5/14	20-40KT	공중	Tu-4폭격기	Uranium-235 원자폭탄
1966/ 5/ 9	200-300KT	공중	Tu-16폭격기	Uranium-235 원자폭탄 (수폭물질 포함)
1966/10/27	20-30KT	지상	Missile (Soviet SS-4)	Soviet SS-4 type missile 로 400mile 운반함. 원폭의 무게가 1964년에 비해 1/10로 가벼워 짐.
1966/12/28	300-500KT	지상	철탑적제	Uranium-235 원자폭탄 (수폭물질 포함)
1967/ 6/17	3MT	공중	Tu-16폭격기	수소폭탄
1967/12/24	20-25KT	공중	Tu-16	수소폭탄 중공정부 공식발표 없었음. 실험이 부분적으로 실패한 듯함.
1968/12/27	3MT	공중	Tu-16	수소폭탄
1969/ 9/22	20-25KT	지하		전술용 원자폭탄 실험
1969/ 9/29	3MT	공중	Tu-16	CSS-2용 수소폭탄 실험
1970/10/14	3MT	공중	Tu-16	수소폭탄 중공정부 공식발표 없었음.
1971/11/18	20KT	지상	철탑적제	전술용 핵실험
1972/ 1/ 7	20KT이하	공중	불명	
1972/ 3/18	20-200KT	공중	불명	전술용 핵실험
1973/ 6/27	2MT+	공중	Tu-16	수소폭탄
1974/ 6/17	2MT+	공중		수소폭탄
1975/10/27	20KT	지하		
1976/ 1/23	20KT이하	지상		
1976/ 9/26	20-200KT	공중		
1976/10/17	불명	지하		전술 핵무기
1976/11/17	4MT	공중		수소폭탄
1977/ 9/17	20KT이하	공중		원자폭탄
1978/ 3/15	20KT	공중		원자폭탄
1978/10/14	50KT	지하		원자폭탄
1978/12/14	20KT	공중		전술 핵무기
1980/10/16		공중		

자료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1966-1981).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째로 폭파방식의 경우에는 공중폭파가 16회, 지상폭파가 5회, 그리고 지하 핵실험이 4회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하폭파는 전술용 핵무기의 개발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³⁾

(3) 지하실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Alice Langley Hsieh, "China's Nuclear-Missile Programme: Regional or Intercontinental?," *China Quarterly*, No. 45 (Jan./Mar. 1971), pp. 88-91.

다섯째로 운반수단으로서의 공중폭파의 경우에는 주로 Tu-16 폭격기가 사용되었고 지상폭파의 경우에는 철탑을 이용한 실험을 해 왔으며 한가지 특기만한 것은 1966년 10월의 실험은 소련의 SS-4 유형의 미사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중공은 다른 핵보유국과는 달리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까다로운 Uranium-235 핵폭탄을 Plutonium-239 핵폭탄보다 먼저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핵보유국 중에서는 최단시간인 2년 8개월 만에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의 실험에 들어가게 되었다.⁽⁴⁾

b) 핵 운반수단

핵무기가 현실적으로 전력화되기 위해서는 운반수단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중공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격기와 미사일들이 운반수단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먼저 폭격기의 경우는 중거리 쌍발 젯트 폭격기인 Tu-16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폭격기는 1950년대말에 소련에서 공급되었던 Tu-16을 본따서 「瀋陽」국립비행기공장에서 1960년대 초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으나 70년대 중반을 넘어서서는 배치기수가 감소 내지는 현상유지에 머무르고 있는 추세를 보여 준다. 한편 미사일의 경우는 미국의 미사일 연구 및 개발에 깊숙히 간여하고 있던 錢學林 박사가 20년만에 「McCarthyism」의 여파로 귀국하여 1955년경부터 기초연구가 시작되었다.⁽⁶⁾ 50년도말에는 초보적 미사일들을 소련으로부터 공여받게 되고 60년대초에는 소련의 SS-4 미사일을 본따서 CSS-1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 MRBM은 60년대 중반의 빈번한 실험을 거쳐 70년대초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는 약 50기에 다달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거리가 약 2,500km인 CSS-2는 70년대 중반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여 80년 현재 65 내지 85기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륙간 탄도유도탄(ICBM)의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6,000—7,000km 정도로 제한되

(4) S.K. Ghosh, "China's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Strategy," in Ghosh & Streedhar, *China's Nuclear and Political Strategy*, pp. 16-20.

(5) 핵운반수단에 관한 자료는 주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London: IISS, 1970-1980)에 의존했다.

(6) William L. Ryan & Sam Summerlin, *The China Cloud: America's Tragic Blunders and China's Rise to Nuclear Power*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표 2. 중국의 핵운반수단

명칭	핵탄두	사정거리 (KM)	개발착수 년 도	배치								수			
				70-71	71-72	72-73	73-74	74-75	75-76	76-77	77-78		78-79	79-80	80-81
Tu-16 (Badger)	1MT	3,220	1960	약간	30	100	100	100	100	60	65	80	80	80-90	90
CSS-1 MREM	15KT	1,800	1959/60		20	20-30	50	50	50	30-50	30-40	30-40	40-50	50	
CSS-2 IRBM	1-3MT	2,500	1960/61				15-20	20-30	20-30	20-30	20-30	30-40	30-40	50-70	65-85
CSS-3 Limited Range ICBM	1-3MT	6,000- 7,000	1967								실험 정		2	4	
CSSX-4 Full Range ICBM	5-10MT	13,000	1969/70												실험 성
CSSN-2 SLBM			1960년대 말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London: IISS, 1970-1980)

어 있는 CSS-3가 1976년경에 실험을 끝내고 1979년경부터는 소수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사정거리가 13,000km 인 CSSX-4는 1980년 5월에 「신강」성에서 남태평양까지의 실험발사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중공은 잠수함용 탄도유도탄(SLBM)도 1960년대말경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자료가 보여 주는 것은 중공이 핵무기의 개발과 함께 비교적 지속적으로 그 운반수단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로서는 약 200여개의 핵탄두 운반이 가능하나 운반수단의 신뢰도나 유도장치의 정확도 등의 면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소련에 비해서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c) 중공의 우주개발

핵보유국에 있어서 우주개발의 수준은 핵 운반수단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 이유로서는 첫째로 인공위성의 발사를 위해 핵 운반수단으로 개발된 유도탄이 변형되어서 사용되며, 둘째로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유도장치는 핵 운반수단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셋째로 사진정찰용 인공위성에 의한 가상의 군사 현황 및 목표의 촬영에 의한 자료 수집은 핵전력의 증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공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의 첫번째 인공위성의 성공적인 발사 이래 현재까지 약 8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1970년대초의 두 인공위성은 CSS-2를 개조한 것으로 발사되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최초의 위성에 비해

표 3. 중공의 인공위성

년/월/일	명 칭	위성 무게 (kg)	발사수단	최근/최원지점 (km)	비 고
70/ 4/24	China-1	173	CSS-2	439/2, 384	실험용
71/ 3/ 3	China-2	221	CSS-2	266/1, 826	실험용
75/ 7/26	China-3	408	CSS-3	184/461	사진정찰위성
75/11/26	China-4	2, 700-4, 500		170/479	사진정찰위성
75/12/16	China-5	2, 700-4, 500		188/385	사진정찰위성
76/ 8/30	China-6	250		194/2, 030	과학용
76/12/ 7	China-7	3, 500		163/489	사진정찰위성
78/ 1/26	China-8	3, 600		161/479	사진정찰위성

자료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70—80.

(7) 중공의 우주개발에 관한 자료는 주로 *SIPRI Yearbook*에 의존했다.

서는 대단히 무거운 것이었다. 약 4년 간의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중공은 1975년에 들어서서 개조된 CSS-3에 의해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진정찰용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1978년까지 모두 6개 정도의 정찰용 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공의 우주 개발의 진척은 핵 운반수단을 비롯한 중공의 핵전력의 향상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중공의 핵실험, 핵 운반수단 및 우주 개발의 현황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중공이 1964년의 첫 번째의 핵실험 이후 다소간의 기복은 있었으나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핵전력의 개발을 이룩해 왔다는 것과 그러나 그 양과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수준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Ⅲ. 중공의 핵개발의 요인분석

중공의 핵무기 개발 추세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 국내정치 및 경제, 과학기술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중공의 핵정책의 변화 요인들을 다음의 여섯 시기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⁸⁾

a) 1945-1952 : 최초의 핵논쟁

1945년 8월의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는 당시 「延安」에 자리잡고 있던 중공의 지도층 사이에 이 무기의 정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신중한 토론을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⁹⁾ 그 결론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1945년 및 1946년의 毛澤東의 원자폭탄에 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는 동

(8) 중공의 핵개발의 요인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Alice Langley Hsieh, *Communist China's Strategy in the Nuclear Er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1962); Morton H. Halperin, "Chinese Attitudes toward the Use and Control of Nuclear Weapons," in Tang Tsou, ed., *China in Crisis, Vol. 2: China's Policies in Asia and America's Alterna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 135-156과 Alfred K. Richeson, "The Evolution of Chinese Nuclear Strategy," *Military Review*, Vol 53(1), (Jan., 1973), pp. 13-32와 Ghosh, "China's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Strategy" 등이 있다.

(9) Halperin의 앞의 글, pp. 137-144.

(10) Mao Tse-tung, "Talk with American Correspondent Anna Louise Strong," in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4*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61), p. 100; Mao Tse-tung, "The Situation and Our Policy After the Victory in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August 13, 1945, in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4*, pp. 21-22.

지 중의 일부가 원자폭탄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부르조아의 잘못된 영향이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기가 아니라 인민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서 毛澤東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은 엄청난 파괴력에 불구하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1930년대에 개발된 인민전쟁 전략에의 계속된 의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중공에 있어서 원자폭탄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1950년의 한국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핵무기의 효용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시에 당시의 중국 대륙의 정치, 경제, 기술적 여건에서는 인민전쟁 전략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제정치, 국내정치, 경제 및 과학기술의 변화와 함께 중공의 핵무기의 필요성 여부는 끊임없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었다.

b) 1953-1957 : 핵개발의 준비기

중공은 1953년초에 미국으로부터 교착상태에 있던 한국 전쟁의 조속한 휴전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핵무기의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핵위협을 비공식적으로 받게 되었다.⁽¹¹⁾ 이 시기에 미국은 중전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부터 한국전쟁 기간에 급격히 증가시킨 핵력을 기반으로 대량보복전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중공은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중전의 「종이 호랑이」론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955년초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무기의 현대화문제가 지도층 사이에서 본격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핵무기의 중요성과 기습 공격의 가능성에는 대체로 이론이 없었으나 이에 중공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주장들이 대체로 양분되었다.⁽¹²⁾ 그 한 그룹은 劉伯承, 葉劍英, 粟裕 등이 대표하는 직업 군인층들의 의견으로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경제건설에 우선해서 소련에 의존해서라도 공군력 및 방공력 등을 위한 현대무기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다른 한

(11) Ghosh의 앞의 글, p. 51; Edward Friedman, "Nuclear Blackmail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Modern China*, Vol. 1, no. 1 (January 1975), pp. 75-91.

(12) Hsieh의 앞의 책, pp. 36-41, 72-75.

그들은 당시의 국방상인 彭德懷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黨측의 의견으로서 핵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무기체제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소련에의 전적인 의존을 통한 단시간내의 개선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면에서 자력갱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소련의 핵우산의 도움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경제 및 기술발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궁극적으로는 핵무기까지도 자력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두 의견이 맞아서 결과적으로는 후자가 우세하게 되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毛澤東이 1956년 4월 25일에 정치국 확대회의상에서 행한 「論十大關係」이다.⁽¹³⁾ 그는 十大關係의 세 번째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핵무기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비행기나 대포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우리는 일본의 침입자들과 蔣介石을 장총과 잡곡만으로 물리쳤다. 우리는 이미 꽤 강해졌고 또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해지는 확실한 길은 적정한 군사비를 책정해서 그것이 국가예산의 20% 정도가 되도록 줄이고 반면에 경제건설비는 늘려서 보다 많은 경제건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국방건설은 보다 커다란 발전을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지않은 장래에 많은 비행기와 총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원자폭탄까지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원자폭탄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군사비의 비율을 줄이고 경제건설을 늘려야만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단지 원자폭탄을 원하는 척만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군사비의 비율을 낮추지 않고 경제건설을 줄일 것이다.」

毛澤東의 이와 같은 연설이 보여주는 것은 핵무기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지도층 내부에 별다른 반대가 없으나 개발전략에 있어서는 의견 대립이 있는 속에서 그는 중공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군사비를 줄이고 대신에 경제건설에 주력하여 장기적인 면에서 핵무기의 생산이 가능하

(13) Mao Tse-tung, "On the Ten Great Relationships," in Stuart Schram, ed., *Chairman Mao Talks to the People*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pp. 67-68.

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측면에서는 중공은 1950년에 신강성의 우라늄 개발을 위한 소련과의 협정과 과학원에 원자력 연구소의 부설, 설치 등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공에 있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기술의 개발은 한국 전쟁이 끝나는 1953년 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¹⁴⁾ 1954년에 중공정부는 서구에 있는 중국 출신의 과학자들의 귀국을 명하고 소련 과학자들과의 교류가 잦아졌다. 1955년초에는 소련의 협조로 新疆省에 우라늄 원광을 처리하는 공장이 세워지고 4월에는 「中蘇原子合作協定」이 맺어져 실험용 원자로의 건설, 원자력 기술자의 훈련 등의 본격적인 협조가 시작되었다. 중공은 1956년에 원자력, 미사일 기술 등을 포함한 「十二年科學發展遠景規劃」을 세우고 1957년 10월에는 소련과 「中·蘇國防新技術協定」을 체결하게 된다. 소련은 이 협정에서 원자폭탄의 견본과 그 생산에 연관된 기술자료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 시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실행과정에서 곧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c) 1958-1963 : 핵무기의 독자개발

세계질서의 운영에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소련은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냉전의 대결상태에서 상호공존속의 경쟁상태로 바뀌고 이에 따라서 양진영 내부에서는 동맹국들이 자기 미국과 소련의 방위공약의 신뢰성(credibility)에 대해 의문들을 제기하게 된다. 중공은 1957년 10월에 체결한 협정의 핵무기에 연관된 조항의 실행을 위한 소련과의 교섭에서 소련의 무리한 요구(태평양에서의 합동해군사령부 설치, 통합방공협정 및 중·소공동 핵병기관리) 때문에 원자폭탄의 독자 개발이라는 쪽으로 지도층 내부의 의견이 기울어지게 되고⁽¹⁶⁾ 이러한 입장은 1958년 8월의 金門·馬祖島砲擊事件을 통해 보여준 소련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더욱 굳어지게

(14) 중공의 핵기술의 발전을 비교적 간결하고 요령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Jean-Pierre Brulé, *China Comes of Age* (Washington, D.C.: Timely Publications, 1972) Ch. 5 The Nuclear Challenge; D.Allan Bromley & Pierre M. Perrolle, eds., *Nuclear Science in China*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80).

(15) William E. Griffith, ed., *The Sino-Soviet Rift* (Cambridge: The MIT Press, 1964), p. 351; *Peking Review*, 1963년 8월 16일, p. 12; 1963년 9월 13일, p. 12.

(16) Raymond L. Garthoff, "Sino-Soviet Military Relation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CCCXLIX (September 1963), pp. 81-93.

되었다. 한편으로 가열화되어 가는 중·소의 분쟁속에서 소련은 1959년 6월 20일에는 1957년의 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1960년 여름에는 당시 3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던 과학자 및 기술자들 1,400명 가량을 철수시키고 동시에 경제원조도 중단하게 된다.⁽¹⁷⁾

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공은 1959년 여름에 공산군의 정치, 경제적 역할의 지나친 강조와 군의 근대화작업의 부진 등에 불만을 제기한 彭德懷 국방상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숙청작업을 행하였다.⁽¹⁸⁾ 새 국방상인 林彪 휘하에서 중공군은 전통적인 인민전쟁전략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핵무기의 독자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1963년에는 1959년부터 소련의 도움에 의해 짓기 시작했던 「蘭州」 우라늄 농축공장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1964년에는 처음으로 핵실험을 행하게 된다.

d) 1964-1971 : 핵개발의 본격화

월남전의 확대와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개입과 중·소관계의 계속적인 악화는 미국의 중국본토에 대한 공격의 위험성과 소련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라는 문제를 중공에다 가져다 주었고 이에 따라 1965년에 전략논쟁이 행해졌는데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세 그룹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¹⁹⁾ 첫째 그룹은 羅瑞卿 총참모장을 필두로 하는 직업군인층의 주장으로서 첫째로 소련과 화해하고 미국의 핵공격을 소련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여 막도록 하고, 둘째로 장기적인 국방목표를 위한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소수의 신무기 개발에 다소 차질이 생기더라도 중공의 통상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마지막으로 월남전에 적극 개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룹인 “합리주의자”들은 소련과의 정상화를 모색하되 동시에 월명을 비롯한 외국의 혁명조직에 원조를 줄이고 또한 미국과의 대결도 피하면서 중공의 산업화에 전력하자는 주장이다. 다음에 毛澤東의 후원 밑에 林彪 국방상이 이끄는 세번째 그룹은 소련 “수정주의자”와 관계개선을 반대하고,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월명의 경우는 가능한 한 독자적인 지구전을 수행하기

(17) Yodor의 앞의 글, p. 11.

(18) Union Research Institute, *The Case of Peng Teh-huai*(Hong Kong,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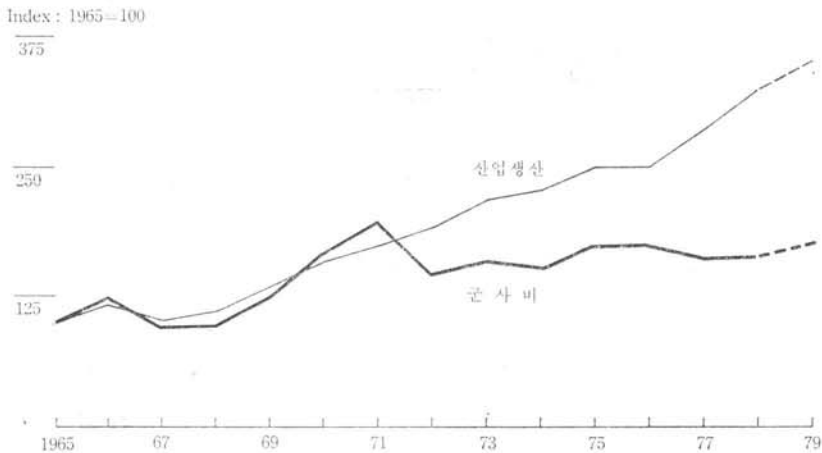
(19) Donald Zagoria, “The Strategic Debate in Peking,” in Tang Tsou, ed., *China in Crisis, Vol. 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 237-268.

를 권고하는 주장들이다. 이와 같은 논쟁의 결과는 毛/林 그룹의 주장이 우세를 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공은 인민전쟁전략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동시에 미국의 위협을 소련에 의존하여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보다는 독자적인 핵전력의 개발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연구 및 개발은 문화대혁명기간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피해속에서 비교적 확실한 발전을 이 기간중에 이루게 된다.

e) 1972-1976 : 핵개발의 정체기

중공은 1969년의 국경분쟁 이후 1970년대초부터는 점차 소련과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미국과는 관계개선을 이루게 됨에 따라 상대적인 면에서 국제정치적 불안정성은 감소되었다. 국내정치, 경제의 면에서는 1971년 9월의 林彪의 쿠데타 실패 이후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대신에 발언권이 커진 周恩來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은 경제건설의 투자에 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었다.⁽²⁰⁾ 이와 같은 국내외 정치, 경제의 변화에 따라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생산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군사비는 1971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떨어져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은

도표 1. 중공의 군사비와 산업생산



자료 :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Chinese Defense Spending, 1965-79* (Washington, D.C.: CIA, July 1980), p. 6

(20) Robinson의 앞의 글, pp. 5-7.

핵전력의 개발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1970년대초의 핵 실험 및 우주개발의 부진이나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던 ICBM 개발의 일시적인 중단 등이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²¹⁾

f) 1977-1981 : 핵개발계획의 회복기

毛澤東의 죽음 이후 1970년대 후반에 중공과 소련의 관계는 한계내의 관계개선의 조짐속에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개선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속에서 중공은 국내적으로 농업, 공업, 군사 및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 계획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1977년 1월 1일자 「Peking Review」에 毛澤東의 1956년의 연설인 「論十大關係」가 재수록되고 1977년 2월의 군사현대화에 관한 4개회의 등을 통해 현대화 작업속에서 군사현대화가 차지해야 할 우선 순위와 그 현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²²⁾ 1978년초에는 대체로 그 윤곽이 들어나는데 첫째로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이 군사현대화에 우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한편 그 방향에 있어서는 기존의 인민전쟁전략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현대전에서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핵전력의 보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서로는 첫째로 국제정치적인 면에서 중공은 단기적으로는 초강대국과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의한 무기경쟁속에서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들로부터의 위협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급진파의 주장처럼 전통적인 인민정책전략에의 의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군사의 현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대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통상 병기의 현대화에 우선권을 주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엄청난 경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투자로써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현대 세계 군사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공은 핵전력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 핵시대속에서의 인민전쟁전략의 현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감소 내지 정체상태에 있는 군사

(21) 앞의 글, p. 5.

(22) Angus M. Fraser, "Military Modernization in China," *Problems of Communism*, Vol. XXVIII (Sep.-Dec. 1979), pp. 34-49; Ellis Joffe & Gerald Segal, "The Chinese Army and Professionalism," *Problems of Communism*, Vol. XXVII (Nov.-Dec. 1978), pp. 1-19.

비의 현황속에서도 중공의 핵운반수단과 연관된 실험들은 활발히 계속되어 중공은 1980년 5월에는 본격적인 ICBM 인 CSSN-4의 실험발사에 성공하여 핵전력의 질적 향상에 새로운 일면을 보여 주었다.⁽²³⁾

IV. 중공의 핵전략

이제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중공은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무기의 한계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핵무기의 개발을 비교적 꾸준히 계속하여 왔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와 같은 중공의 핵전력이 세계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공이 이와 같은 소규모의 핵전력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중공의 현재의 핵전력에 기반해서 가능한 핵전력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핵전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약 200~300개에 달하고 있는 운반 가능한 핵무기가 상대방의 공격에 얼마나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핵무기 자체와 운반수단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세째로는 상대방의 방공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적의 공격목표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최소한 검토되어야 한다.⁽²⁴⁾ 현재 중공이 소련을 주공격목표로 삼는 경우에 첫째로 소련의 선제공격에 살아 남을 수 있는 핵무기의 수는 핵기지의 분산 및 자연 지형지물의 이용 등으로 상당수에 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공이 제 2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중공의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신뢰성이 대단히 낮은 편이고 동시에 소련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실패율은 극히 높아지고 더구나 중공의 운반수단의 유도장치가 고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격의 정확성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리상으로는 소련의 주요 공격목표가 될 수 있는 대도시, 산업기지, 군사기지

(23)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의 본토까지도 사정거리에 포함하고 있는 CSSX-4의 실험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Gerald Segal, "China's Strategic Posture and the Great-Power Triangle," *Pacific Affairs*, Vol. 53(4) (Winter 1980-81), pp. 682-697.

(24) Geoffrey Kemp, "Nuclear Forces for Medium Powers: Part I & II," *Adelphi Papers*, No. 106 & 107 (London: IISS, 1974).

모두가 중공의 북쪽 국경으로부터 2,500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²⁵⁾ 중공은 ICBM이나 IRBM 또는 Tu-16 등으로 공격 가능하기는 하나 위에서 든 문제점으로 인해 그 성공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중공의 소규모의 핵전력은 따라서 공격적인 면에서의 전쟁수행 능력이나 또는 초강대국과의 전면전의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공은 오히려 방어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수행 능력으로서 그들의 핵무기를 생각하고 따라서 일종의 핵의 게릴라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면전의 수행을 저지케 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어느 한계내에서의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초강대국으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음으로써 최소한의 저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전력은 기존의 인민전쟁전략이 오늘의 핵시대에서 부딪치게 되는 한계의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V. 중공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오늘의 중공의 핵무기가 현대 세계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그 영향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는 현대 세계질서의 안정성(stability)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편의상 첫째, 초강대국간, 둘째, 초강대국들과 중공, 셋째, 중공과 주변의 비강대국, 넷째, 주변의 비강대국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서 그 해답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의 중공의 핵전력으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단지 중공의 핵전력의 증가와 함께 1960년대 후반의 미국에서의 ABM(Anti-ballistic Missile) 논쟁의 전개나 1960년대말 이후에 소련으로 하여금 중공과의 국경선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국과 소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중공이 보다 빠른 속도로 ICBM의 실전배치, SLBM의 생산 등으로 명실상부한 독립 핵

(25) Michael Dobbs, "Notes on the Chinese Nuclear Program," in Geoffrey Kemp, Robert L. Pfaltzgraff, Jr., Uri Ra'anana, eds., *The Superpowers in a Multinuclear World* (Lexington, Mass.: D.C. Heath and Company, 1973), p. 274.

균을 이루게 된다면 이제까지의 미국과 소련의 독점적 핵전력이 핵의 삼각관계로 확대됨과 더불어 세계질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²⁶⁾ 이에 따라 핵 강대국들의 정책결정과정도 보다 신중성을 기하게 될 것이다. 둘째, 초강대국과 중공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공의 핵무기 자체가 1969년의 소련과의 경우처럼 선제 공격의 위협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의 일면이 있으나⁽²⁷⁾ 현재로서는 초강대국과의 이해의 상충이 생겨날 때에 초강대국으로 하여금 쉽사리 무력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억제시키는 일면이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안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중공과 주변의 비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공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신의 핵개발의 목적이 제국주의들의 핵공격 또는 핵공갈에 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따라서 절대로 핵을 공격을 위해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⁸⁾ 나아가서는 그들의 핵무기는 현대 세계질서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제 3세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중공의 핵개발은 주변의 비핵보유국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으로서 존재하고 그 결과로서는 1974년의 인도의 핵실험과 또 이에 따른 파키스탄의 핵개발의 노력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불안정한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공의 주변에 있는 비강대국들간에 중공의 핵이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찾기는 어려우나 중공의 핵전력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핵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삼각관계가 안정될수록 이 지역에서의 비강대국들간의 관계는 핵의 강대국들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소규모의 중공의 핵전력은 초강대국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오고 주변의 비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한편 초강대국간의 관계나 주변의 비강대국간의 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약하다. 그러나 중공의 핵전력의 급신장으로 핵의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초강대국 사이에는 보다 신중성을 불러 일으

(26) Segal의 앞의 글, pp. 682-697; Leo Yueh-Yun Liu, *China as a Nuclear Power in World Politics*, Ch. 7.

(27) Ghosh의 앞의 글, p. 69.

(28) Leo Y. Liu, "China's Attitudes Towards Her Nuclear Weapons," *China Report*, Vol. 7 (May/June 1971), pp. 34-42.

(29) 위의 글, pp. 34-42.

킬 것이고 주변의 비강대국 사이에는 불안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로는 중공의 핵무기가 현대 세계질서의 힘의 집중(power concentration)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짜여져 나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동맹체계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동맹체계는 그 구조가 대단히 수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³⁰⁾ 따라서 양 초강대국에 의한 전권이 행하여졌으나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협조속의 경쟁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지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점진적으로 국력이 증강 또는 회복되어져 가는 중공이나 불란서등은 그들의 동맹체계가 그들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그들 나름의 한정된 의미에서의 독자노선을 추구하게 되며, 따라서 독자적인 핵무기의 개발도 그 일환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중공의 독자적인 핵군이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소련의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어느 한계내에서의 독자적인 국방체계를 가져다 주었고 이는 다시 국제정치에 있어서 상대적인 의존성의 감소를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중공의 핵무기가 현재의 세계정치질서의 수직적 구조의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에 미약하나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끝맺는 말

이상과 같은 연구 검토에서 밝혀진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자면 첫째로 중공의 핵전력은 1964년의 최초의 원자폭탄의 실험 이래 비교적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머지않아 ICBM의 실용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이나 미국이나 소련에 비해서는 양과 질에서 비교가 안되는 실정이다. 둘째로 중공의 핵전력 개발의 요인으로서 국제정치적인 면에서 초강대국들의 핵의 독점 및 위협과 더불어 국내정치, 경제 및 기술의 변수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중공의 핵전략은 서구지역에서 통용되는 억제전략으로서 분석하기 보다는 1930년대의 인민전쟁전략의 핵시대하에서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 중공의 핵무기가 세계질서

(30) George Modelski, "United States Alliances: "Obsolescence of the 'Korean' System?" *World Affairs*, Vol. 139 (2) (Fall 1976), pp. 75-84.

의 안정과 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안정의 면에서는 중공의 핵무기가 초강대국과 중공의 관계에는 안정화를 중공과 주변의 비강대국과의 관계에는 불안정화를 그리고 초강대국간의 관계나 주변의 비강대국간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등화의 면에서는 중공의 핵무기가 현대 세계질서의 독점적 구조의 개선에 미약하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공의 핵전력의 개발과 증강은 꾸준히 계속될 것이나 짧은 시일 내에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들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오늘의 세계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